
기업협력과 정부지원에 따른 IT제조기업 기술혁신 영향 분석

박태훈*, 박경혜**

Effect of IT Manufacturing Firms' Technological Innovation Factors -Focused on Cooperative relation and Governmental support-

Tae-Hoon Park*, Kyung-Hye Park**

요 약 지식기반 시대에서 IT제조기업 생존을 위한 기술혁신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혁신은 다른 산업 영역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IT제조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더욱 필요하며 다양한 요인들이 기술혁신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IT제조기업의 기업 협력과 정부 지원이 기술혁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 : S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IT 제조기업 협력과 정부의 지원은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IT제조기업에 대한 지원이 기업의 협력을 유도하고 보다 지속적인 관심과 육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IT제조기업 지원, 협력관계, 기술혁신, 제품혁신, 공정혁신

Abstract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of IT manufacturing firms is the competitive tool for them to survive in the environment of an intensive competition. This technological innovation is critical in the survival of IT companies, but various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to embody technological innovation effect.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determinant factors of the outcome which influence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based on the IT companies, and set up a model for measuring technological innovation effect. A hypothesis was established for the impact relation between technological innovation effect, cooperative relation and government support level, which was verified through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As a result, the cooperation of IT companies and the governmental support affect the effectivenes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Eventually, government support for IT manufacturing firms derive business collaboration and continuous support is needed.

Key Words : IT Companies support, Cooperative relation, Technological innovation, Product innovation, Process innovation

1. 서론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미래 성장성을 증시하는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 노력이 필수적이며, 특히 변화가 심한 벤처기업의 혁신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어 혁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11][14]. 더욱이 IT 기업의 경우에는 다각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장주도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 아이디어와 기

술을 만드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기술혁신 생태계를 잘 파악하여 정부 정책 방향, 혁신 활동 준비, 협력 전략 수립 등 다양한 혁신 원천을 고려해야만 경쟁에 승리할 수 있는 핵심 요소를 보유하게 된다[4][15].

본 연구는 국내의 국가 기술혁신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2010년 제조업 분야 기술혁신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표준산업분류 코드

*대전테크노파크 책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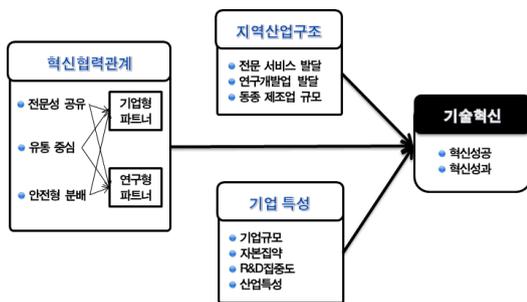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교신저자)

논문접수: 2012년 8월 27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2년 10월 6일

로 214개 IT제조기업을 추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IT 제조기업의 협력과 정부 지원 수준이 기술혁신의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IT기업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협력수준이나 정부에서 제공해야 할 혁신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향후 IT제조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10][12].

2. 기존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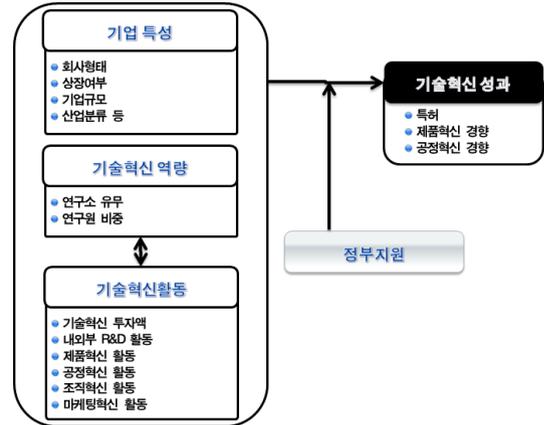
김경아(2005)는 기업혁신성과에 대해 지역산업구조와 혁신협력 관계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여 지역 혁신체계 관점에서 기술혁신과의 인과관계를 정리하였다. 논문에서 지역혁신체제와 관련된 정책들은 산학연의 관계를 첨단산업의 창출보다는 이미 시장에 도입된 혁신을 지역에 입지한 기업들이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혁신의 전도사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혁신 성공 기업들 중 일정 규모의 기업들이 특허 및 지적재산권의 출원건수가 가장 많고, 그 이상 규모를 가진 기업은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혁신협력관계에 있어서는 혁신제품이 매출액으로 성과를 거두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전문성을 공유하는 목적의 협력은 공정혁신이나 개선혁신, 신제품 혁신, 혁신매출에서 유의성이 높은 협력전략으로 분석되었다고 설명하였다[2].



[그림 1] 김경아(2005)의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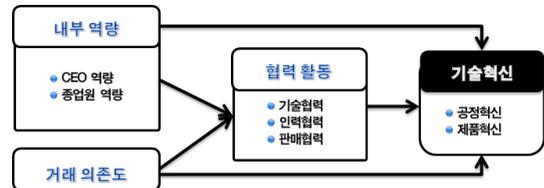
이정수(2011)는 기술혁신의 투자, 정보의 원천, 기술의 독점성, 기업의 규모 등을 기술혁신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즉,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술혁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해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종속변수인 기술혁신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는 특허

출원 경향, 특허출원 개수, 제품혁신 유무, 공정혁신 유무를 구분하였고, 설명변수로는 크게 기업특성, 기술혁신역량, 기술혁신활동, 투입변수, 혁신 정보원천으로 구분하였으며, 기업규모, 기술혁신투자, 기술독점성, 마케팅 활용, 정부지원, 정보원천을 주요 변수로 활용하였다[9].



[그림 2] 이정수(2011)의 연구모형

강용운(2011)은 중소기업 내부역량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위계관계 및 영향력을 내포하고 있는 거래 의존도를 협력활동의 선행변수로 제시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이 기술혁신 향상에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연구모형을 기업 CEO 역량과 종업원 역량으로 구분되는 내부 역량과 대기업과의 거래의존도가 기업의 협력활동(기술협력, 인력협력, 판매협력)에 영향을 미쳐 기술혁신을 이뤄서 기업성과가 결정된다는 논리로 설정하였다[1].



[그림 3] 강용운(2011)의 연구모형

기업의 기술혁신을 다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IT제조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모형은 기업협력 수준과 혁신활동 역량, 정부지원 역량과 기술혁신의 효과 및 성공여부에 대한 인과관계 형태로 설정할 수 있다[4][6].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포괄적 역량을 다루는 변수보다는 변화가 많고 혁신의 수용도 빠른 IT제조기업의 성격에 맞춰 기업의 협력과 정부의 지원이 기술혁신의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3. 본론

3.1 변수의 설정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본 논문의 변수를 설정하고자 한다. 연구변수의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기술혁신 중에 제품혁신은 기존제품에 비해 성능이나 용도 면에서 완전히 다른 제품 또는 크게 개선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여 회사의 매출에 영향을 준 경우를 의미한다. 공정혁신은 생산 공정과 납품 및 유통 등 물류 방법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 혹은 크게 개선된 방식을 실제운영에 적용하여 생산 및 물류비용의 절감, 품질 향상 등에 영향을 준 경우를 의미한다. 벤처기업의 협력에 대해서는 기업간 협력과 학교나 연구소와의 협력으로 구분하였으며, 정부지원은 크게 기술개발 지원과 기술지원 및 인력양성 지원, 그리고 마케팅/구매지원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기술개발 지원은 기술개발 조세 감면,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자금지원), 정부 연구개발 사업 참여로 3가지 설명항목으로 구성했다. 기술지원 및 인력양성 지원은 정부 기술지원 및 지도, 기술정보 제공, 기술인력 및 교육연구 지원으로 3개 항목으로 구분하였으며, 마케팅/구매지원은 정부 및 공공부문의 구매와 마케팅 지원(전시회, 수출홍보 등) 2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제품혁신의 효과와 공정혁신의 효과 각각 3개의 측정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표 1〉 종속변수의 설정

변수		측정항목
종속 변수	제품혁신효과	• 품질개선 및 원가절감, 기존제품 대체, 제품 다양화
		• 시장점유율 확대/유지 및 신규시장 개척
		• 산업기술표준달성 및 국내외 규제 대응
	공정혁신효과	• 품질개선 및 비용절감(인건비 절감, 기타 원가 절감)
		• 생산효과 증대(생산 소요시간 단축 및 생산 능력 증대, 물류 속도 개선)
		• 작업환경 및 안정성 개선, 산업기술표준 달성

〈표 2〉 독립변수의 설정

변수		측정항목	
독립 변수	기업 협력	기업간 협력	• 공급업체(원료, 부품, SW)와의 협력 • 수요기업 및 고객과의 협력 • 동일산업내 경쟁사 및 타기업과의 협력
		학연간 협력	• 민간서비스업체(컨설팅, 민간연구소)와의 협력 • 대학과의 협력 • 정부출연연 및 국립연구소와의 협력
		정부 지원	기술개발 지원
	기술지원 및 인력양성 지원	• 정부기술지원 및 지도 • 기술정보 제공 • 기술인력 및 교육연구 지원	
	마케팅/ 구매지원	• 정부 및 공공부문의 구매 • 마케팅 지원(전시회, 수출홍보 등)	

3.2 통계 분석

통계분석을 위해 가설을 설정하고 SPSS ver 18을 활용한 신뢰성 분석 및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조방정식을 통한 분석은 Amos ver20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개발된 측정이론에 토대를 둔 확인적 요인분석과 계량경제 분야에서 개발된 연립방정식 모델을 토대로 하여 다중회귀분석 및 경로분석 등이 결합된 형태의 분석 방법론이다. 연구모델에 포함되는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간의 관계, 잠재변수와 잠재변수 간의 관계 및 방향 등을 연구자가 사전에 수립한 모델을 기초로 분석하며, 연구 이론을 토대로 사전에 수립한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해당 모형이 자료에 의해 지지되는가를 검증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관심사이다.

(가설1) IT제조기업의 협력이 기술혁신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2) IT제조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기술혁신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신뢰성(Reliability)은 측정한 다변량 변수 사이의 일관된 정도를 의미한다. 동일 개념에 대하여 반복적 측정을 했을 때의 측정값들의 분산을 의미한다[3][13]. 본 논문에서는 크론바하 알파값을 사용하여 신뢰성을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0.7 이상이면 신뢰도에 문제가 없으므로 공정혁신 효과 관련 변수 중 작업환경 및 안정성 개선,

산업기술표준달성 변수는 향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3〉 연구변수 신뢰성분석 결과

구분		크론바하 알파값	
독립 변수	기업 협력	기업간 협력	0.773
		학연간 협력	0.789
	정부 지원	기술개발 지원	0.802
		기술지원 및 인력양성 지원	0.902
		마케팅/구매지원	0.717
종속 변수	제품혁신 효과	품질개선, 원가절감, 제품대체, 제품 다양화	0.735
		시장점유율 확대/유지, 신규시장 개척	0.795
	산업기술표준달성 및 규제대응		0.822
	공정혁신 효과	품질개선, 인건비 및 원가절감	0.728
		생산시간 단축, 생산능력 증대, 물류속도 개선	0.813
		작업환경 및 안정성 개선, 산업기술표준달성	0.595

〈표 4〉 독립변수에 대한 회전된 성분행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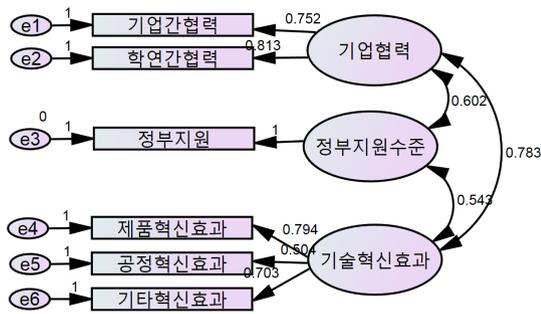
구분		요인분석 결과			공통 성		
		성분1	성분2	성분3			
기업 협력	기업 협력	공급업체	.123	.237	.756	.643	
		수요기업	.085	.203	.814	.712	
	학연 협력	경쟁사	.159	.226	.776	.679	
		민간연구소	.172	.748	.266	.659	
		대학	.131	.791	.239	.700	
정부 지원	기술 개발 지원	출연연구소	.288	.750	.243	.705	
		조세감면	.601	-.137	.255	.445	
		기술개발 사업화	.677	.251	.085	.529	
	기술 지원 등	기술개발 참여	.802	.332	.050	.756	
		기술지원지도	.855	.277	.034	.810	
		정보제공	.840	.143	.170	.756	
	마케 팅등	인력교육	.809	-.005	.176	.685	
		구매지원	.736	.203	.046	.585	
			전시회	.740	.188	.065	.588
	고유값		6.091	2.126	1.033		
누적 설명 분산(%)		43.507	58.697	66.073			
KMO(Kaiser-Meyer-Olkin) 측도 : 0.891,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유의확률) : .000							

〈표 5〉 종속변수에 대한 회전된 성분행렬표

구분	요인분석 결과			공통성	
	성분1	성분2	성분3		
제품 혁신 효과	품질개선	.256	.533	.392	.504
	원가절감	.348	.451	.423	.504
	제품 대체	-.033	.523	.489	.622
	제품 다양화	.049	.800	.170	.671
	시장 확대	.208	.757	.101	.627
	시장 개척	.154	.699	.266	.584
	표준 달성	.055	.274	.844	.791
	규제 대응	.173	.187	.822	.740
	공정 혁신 효과	품질 개선	.602	.394	.054
인건비 절감		.835	.104	.189	.743
기타 원가 절감		.820	.058	.255	.741
생산 시간 단축		.868	.208	-.033	.799
생산 능력 증대		.824	.251	-.150	.765
물류 개선		.712	-.056	.402	.671
고유값		5.746	2.376	1.158	
누적 설명 분산(%)		41.046	58.018	66.291	
KMO(Kaiser-Meyer-Olkin) 측도 : .821,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유의확률) : .000					

연구변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연구모형으로 설정된 항목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구분하여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방법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3]. 본 논문에서는 변수의 동일한 요인으로 묶이는 경향을 고려하여 높은 적재치인 0.5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흔히 일반적으로 쓰이는 베리맥스 회전에 의한 직교회전을 이용하여 분석을 더욱 명확히 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3개의 성분으로 분류되었으며, 공통성이 0.5이하인 기술개발을 위한 조세감면 설문변수는 향후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독립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기업간 협력, 학연간 협력, 그리고 정부지원 3개의 성분으로 묶였다. 종속변수는 제품혁신 효과와 공정혁신 효과, 그리고, 표준달성 및 규제대응과 같은 기타혁신 효과 3개 성분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표 5]에서와 같이 몇 가지 주요 지수를 이용하여 판단하였다. 그 결과 AGFI(조정부합치), RMR(원소간 평균차이) 지수와 카이제곱 통계량의 유의확률이 최적모형으로는 적합하지 않게 나타났지만, 나머지 항목에서 최적모형의 조건을 충족한다. 더욱이 AGFI값이 0.9에 가까워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결과는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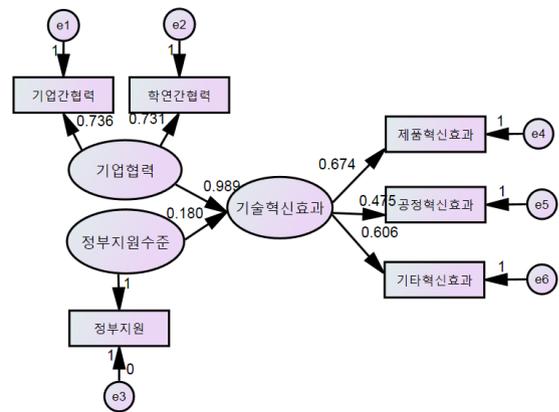
<표 6> 연구모형의 적합도 판단

구분	적합지수	최적모형	적합도 결과
절대부합지수	χ^2 검정 결과 (카이제곱 통계량)	0.05 이상	0.001
	GFI (기준부합치)	0.9 이상	0.963
	AGFI (조정부합치)	0.9 이상	0.889
	RMR (원소간 평균차이)	0.05 이하	0.083
충분부합지수	NFI (표준부합지수)	0.9 이상	0.941
	NNFI (비표준적합지수)	0.9 이상	0.905

주1) 절대부합지수 : 모형의 전반적인 부합도를 평가하는 지수
 주2) 충분적합지수 : 기초모형(Null Model or Independent Model)과 제한모형의 비교를 통해 모형의 개선 정도를 파악하는 지수

3.3 가설 검정 결과

연구모형에 대한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모형의 경로 중에서 기업협력으로부터 기술혁신 효과에 이르는 경로의 표준화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가 0.9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부의 지원으로부터 기술혁신 효과에 이르는 경로의 계수는 0.180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림 5] 연구모형의 인과관계 검증 결과

기업 협력과 기술혁신 효과와의 경로계수는 0.989, C.R.은 8.306,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나 기업 협력이 기술혁신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지원과 기술혁신 효과와의 경로계수는 0.180로 낮지만, 유의확률은 0.003으로 유의수준 95%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가설에 대한 검정 결과

가설		C.R.	P-Value	유의 여부
가설1	기업 협력 → 기술혁신효과	8.306	0.000**	유의
가설2	정부지원수준 → 기술혁신효과	3.015	0.003**	유의

주) **: P-value < 0.05인 경우

4. 결론

IT제조기업에 대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크게 IT기업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방법과 직접적인 기업지원 사업을 통한 성장 유도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IT 제조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장에서의 경쟁은 개별기업간의 경쟁이라고보다는 혁신을 위한 기업 간 협력과 대학이나 연구소 등과의 협력이라는 본질을 지니고 있어 협력적 관계의 효율적 관리가 경쟁우위 원천의 필요충분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IT 제조기업의 혁신 효과 증대와 경쟁력은 개별 기업의 성과나 경쟁력이 아니라 혁신의 기반이 되는 R&D와 기술력 확보에 강한 외부 기업(대기업과의 상생협력 포함) 및 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관계로부터 시작됨을 알 수 있다. 즉, 학교나 연구소와의 협력, 그리고 타 기업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창출되는 역량은 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이 분명하다.

두 번째로 IT제조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개별기업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전부가 될 수 없으며 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를 강화하기 위한 충분한 요인이 아니다[7]. 본 논문에서도 비록 정부의 지원이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경로계수가 매우 낮아 유의수준의 변화(99% 수준으로의 조정)에 따라 가설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의 기업지원 정책이 단선적 사고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며, 기업의 협력 지원보다는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단발성 기업지원 사업이 단기적 사업의 성과에 치중되고 이는 연구기획력의 저하와 평가의 미흡을 가져와서 결국 정부 지원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민간투자를 축소시키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기업의 투자위축을 발생시키는 것)가 발생되지 않고 IT 제조기업의 협력이나 혁신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클러스터 지원, 네트워크 사업, 멘토링 제도, 기업 주치의 사업 등의 중장기적 시각으로부터 비롯된 사업 기획을 통해서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데 기여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 실제 최근에 이러한 기획의 사례가 도출되고 있다. 지역 테크노파크의 지역산업지원사업을 통해서 벤처기업의 기술, 경영, 금융 등 기업환경 전반에 대해 현장 밀착식 성장 코칭 전문 컨설팅 제공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하는 형태를 진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IT제조기업에 대한 정책과 정보가 변화하면서 협력 기반의 중장기적 기업 지원 체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IT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통한 국가차원의 혁신이 가능하리라 예측된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향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연구로는 기술혁신을 중도 포기 혹은 미완료된 경우에 대한 실패분석이다. 혁신 역량을 쌓기 위한 내외부적 기업 활동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도 포기하거나 미완료된 경우의 세밀한 분석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개별 기업별 시계열적인 데이터의 확보가 가능하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특정 IT제조기업의 기술혁신활동역량과 혁신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혁신의 흐름을 통해 기업 지원 정책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1] 강용운(2011), “대·중소기업간 협력활동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2] 김경아(2005), “지역혁신체제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3] 김계수(2011),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한나래아카데미
- [4] 박경혜(2012), “한국 IT융합 신산업 역량강화요인”, 디지털정책연구, 제10권 제1호
- [5] 박태훈(2012), “제조기업의 기술혁신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6] 박태훈·박경혜(2012), “IT산업의 기술혁신 영향요인에 대한 모형 연구”, 디지털정책연구, 제10권 제5호
- [7] 박태훈·박경혜(2012), “IT제조업 정부 지원 수준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정책연구, 제10권 제6호
- [8] 서상혁(2004), “첨단벤처기업의 신제품출시성과 영향요인 분석”, 벤처경영연구, 제7권 제1호
- [9] 이정수(2011), “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연구개발투자, 정부지원 그리고 정보원천의 역할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10] 하태정 외(2010), “2010년도 한국의 기술혁신조사 : 제조업 부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11] Abernathy, W.J. and J.M. Utterback(1978), “Patterns of Industrial Innovation,” *Technology Review*, Vol.80
- [12] Christensen, C.M.(1994), “Exploring the Limits of the Technology S-Curve. Part I : Component Technologies,” *Prod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Vol.11, No.2
- [13] Churchill, G.A. Jr., “A Paradigm for Developing Better Measures of Marketing Construct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16
- [14] Higgins, J.M.(1995), “Innovate or evaporate : Seven secrets of innovative corporations”, *The Futurist*, Vol.29
- [15] Rogers, E.M.(1995), “Diffusion of Innovations”, 4rd ed., New York

박 태 훈



- 1999년: 충남대학교 통계학과(이학 석사)
- 2005년: 아주대학교 경영학과(경영 학석사)
- 2012년: 충남대학교 경영학과(경영 학박사)
- 1999년 9월~2003년 3월: 한국인터넷진흥원 선임연구원
- 2003년 4월~현재: 대전테크노파크 책임연구원
- 관심분야: 기술혁신, 비즈니스 모델 분석, 협업네트워크
- E-Mail: thpark1@naver.com

박 경 혜



- 1986년: 충남대학교 회계학과(경영 학사)
- 1995년: 프랑스INSA(국립응용과학원) 컴퓨터공학(공학석사)
- 1998년: 프랑스INSA(국립응용과학원) 경영정보공학(공학박사)
- 1995년 9월~1998년 12월: 프랑스 PRISMa연구소 연구원
- 1999년 1월~2001년 8월: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책임연구원
- 2001년 9월~현재: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관심분야: e-비즈니스, 협업네트워크, 정보경영
- E-Mail: kpark@cnu.ac.kr